



방송

자주 보는 유튜브 Shorts Top 5

예전부터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소개 글을 꾸준히 써볼까 했는데 개같이 유기했다. 영상 감상문 쓰는 것도 역시나 밀리는 중. 조금 더 가볍게 쇼츠 소개 글 써볼까 한다. 시작에 앞서 꼭 하고 싶은 한 마디. 애초에 유튜브 쇼츠는 가급적 보지 말자.

숏 폼 미디어 콘텐츠가 좋다 나쁘다 얘기가 많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체감상은 별로다. 빠른 시간 안에 최신 유행도 알고 재미도 얻는다는 장점은 있는데 자주 봐버릇하니 몰입 시간이 매우 떨어지는 듯한 느낌. 소위 말하는 '뇌 빠고 보기'를 시전하면, 양산형 쇼츠가 너무 많아서 무맥락으로 보게 되고 피곤해진다. 차라리 한 채널 쇼츠만 연이어 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여하튼 이런 문제를 알고도 나는 이 악물고 보는데, 그중 취향인 채널 5개 모아봤다.

▶ 1분요리 똑딱이형



사진 클릭 시 쇼츠 채널 이동

생활밀착형 요리사 아저씨 채널. 다른 쇼츠 보다가 나왔는데, 괜찮겠다 싶으면 종종 따라 해 먹었다. 블로그도 운영하시니 포스팅과 쇼츠 함께 보면서 따라 하면 된다. 쉽고 간편한 레시피를 지향하시는 것 같지만 나름 중급자 코스다. 요새는 밥을 좀 대충 해먹는 편이라 잘 안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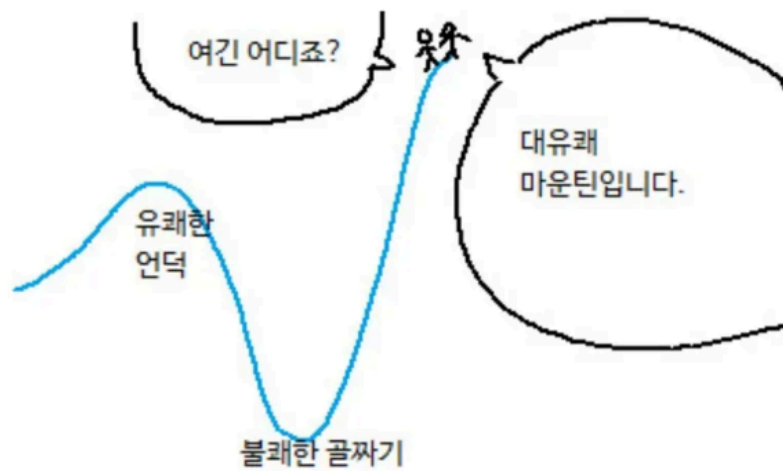
좀 더 적은 재료로 간편하게 뭐 좀 해먹고 싶다 하면 '자취요리신 simple cooking' 채널이 그나마 괜찮은 듯. 여기가 초급자 코스. 다만 난이도와 퀄리티, 다양성은 비례 관계라는 건 잊지 말자. '공격수셰프 Striker chef' 채널이나 '레시피 읽어주는 여자', '나니까' 등등 간간이 보는 요리 채널들이 더 있긴 하지만 하나만 꼽는다면 역시 똑딱이형.

▶ 고세구 GOSUGU



사진 클릭 시 쇼츠 채널 이동

나는 이세돌이나 버튜버 잘 모르고 안 좋아한다. 다만 취향 떠나서 미래에 시장 파이가 더 커질 거라는 확신은 있다. 기술 발전이 버튜버와 같은 캐릭터와 현실 인간 사이의 경계를 많이 허물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대유래 마운틴이 머지않았다.



그 너머에 대유쾌 마운틴이 있다

그냥 취향인 건지 피터팬 콤플렉스라도 있는 건지 나는 이런 동글동글 귀여운 아동 만화 그림체가 좋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지 않나. 자취가 길어질수록 백반 찾게 되듯 인터넷 망령 생활이 길어질수록 매운맛 유머보다 잔잔한 유머를 더 자주 찾게 된다. 물론 매운맛 포기는 안 한다.

별 내용도 없고 채널 주인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 그리는 사람은 아마 팬일 것 같은데 일하는 게 꽤나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본다.

▶ 김중호 쇼츠



사진 클릭 시 쇼츠 채널 이동

나도 내가 이걸 왜 자주 보는지 모른다. 담백한 맛에 보는 듯. 영상이나 댓글이나 패턴이 정형화되어있다는 게 특징이다.

존댓말로 적당히 음식 설명을 한 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영상과 대충 주인공에게 반말로 적당히 웃기면서 무례한 말과 함께 뒤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여준 댓글.

누가 자동화해서 김중호 봇 채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성형 AI로 적당히 이미지랑 스크립트, 목소리까지 뽑아내면 충분히 가능할 듯. 주인공이 참고해서 쇼츠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

김중호 쇼츠 채널과 그냥 김중호 채널이 있는데 쇼츠 채널은 먹거리 관련 영상만 올리는 듯.

▶ 팔쥬



사진 클릭 시 쇼츠 채널 이동

AI 보이스라 초반에 거부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다. 몰아보면 재미있다. 틱톡, 릴스 안 하는 나 같은 사람은 요새 뭘 밈이 유행인가 궁금할 때 여기 올라온 거 보면 된다.

▶ 강지



사진 클릭 시 쇼츠 채널 이동

미소의 세상 생각나는 그림체.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에 가깝다. 목소리나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림체가 취향이
라 골라봤다.

오늘의 결론.
쇼츠는 보지 말자.